

교통불편·알바생 부당 처우... 앱 속에 해법있네

광주시, 생활정보 앱 보완·신설

개방 SNS보다 민원 밀착 해결

당신이 도로에서 싱크홀(Sink hole)을 발견한 뒤 광주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면 모범시민이다. 그런데, 정보에는 한참 뒤쳐진 시민이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싱크홀을 촬영한 뒤 그대로 전송하면 민원이 곧바로 접수된다. 광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BAND) '빛고를 길 지키미'를 이용하면 된다. 네이버 '밴드'는 인터넷 상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회원이 돼 소통하는 폐쇄형 사회관계망 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s)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생활, 교통불편 등 20개 항목의 민원, 4항목의 정책제안 등 모두 109종의 시민 민원 창구를 아우르는 스마트폰 앱(app)을 개발하고 있다. 앱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에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준말이다.

시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모바일 웹



네이버 밴드 '빛고를 길 지키미'.

■ 알아두면 좋은 광주시 앱

교통 불편 신고	빛고를길 지키미
알바생 부당 처우 신고	알바지킴이
광주시 업무 전반 통화·문자·채팅상담	빛고를 콜센터

있는 앱도 눈길을 끈다. '시민소통플랫폼', '엠보팅광주', '공공서비스통합예약', '공유&나눔', '장소중심 SNS' 등은 오는 6월 서비스 시행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알바지킴이' 앱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는 창구다. '빛고를 콜센터' 앱에서는 광주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통화상담·문자·예약·채팅상담이 가능하다.

'모바일 광주' 앱은 광주시를 대표하는 웹 포털로서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장소중심 SNS' 앱에서는 시민이 머물고 있는 주변의 시설, 식당, 숙박 등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시는 이같은 스마트 행정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시 IT사업을 추

진하는 부서명칭 변경과 팀을 신설했다. 기존의 정보화담당관실을 '스마트행정담당관실'로, 정보기획팀을 '스마트기획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모바일행정IT팀'도 신설해 대 시민 서비스와 내부행정을 스마트화 했다.

광주시의 두드러진 점은 개방형 SNS는 물론 폐쇄형 SNS인 밴드를 이용해서도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민과 소통창구를 개방형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스마트 행정은 현장에서 빛을 내고 있다. 시민들이 쉽게 도로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빛고를 길 지키미 밴드'를 개설, 신고와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밴드를 개설한 지난 2014년 9월부터 1월까지 모두 1330건 민원을 접수, 모두 1075건을 처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모바일 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SNS를 통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민 300명, 청년 버팀목 된다

광주시 '청년정책 공감단' 20일까지 모집

광주 청년들의 사고와 역량을 한데 모아 청년 정책의 공감을 확산하고, 이를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자문단이 결정된다.

광주시는 지역 내 청년담론을 활성화하고 정책 주요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정책 공감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정책 공감단'은 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 의제의 주요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는 '광주청년포럼'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하고,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 해법을 찾는 '청년도시 컨퍼런스'에도 참가하게 된다.

'청년정책 공감단'은 공개 모집 50%, 추천 모집 50%로 총 300명으로 구성되며 만 15세 이상의 광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청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원탁토의를 통해 청년 당사자 의견수렴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청년정책 공감단을 운영하면서 세대를 아우르며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청년정책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에도 구성하는 청년정책 공감단을 포함해 그동안 시의 청년관련 시책 등에 참여해온 인력풀을 종합해 연말까지 '광주청년정책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정석 청년인재육성소장은 "청년문제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라며 "청년정책 공감단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해법을 모아가는 광주의 힘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서식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0일까지 우편, 이메일(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전국 최초로 청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한 광주시는 올해 시정의 최우선과제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세우고 예산 296억원을 배정해 청년시책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을 보완하고 3대 밸리 조성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찾아가는 한편, 청년의 권리 증대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원 가꾸기 봉사단원 양성

'시민 가드너' 22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정원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도심에 정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민 가드너'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시민 가드너'는 광주지역 공원이나 녹지에서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생활 주변에서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활동을 하며, 매 2년간 공원녹지 분야에서 9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만 '시민 가드너' 자격이 유지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시민 가드너' 양성 교육기관으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4월22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이론·실습과정과 봉사·인턴과정 등 2개로 나눠 진행된다. 이론·실습과정은 50명을 모집하며, 광주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강사가 정원 이론교육과 정원 설계·시공·관리 등 기초과정을 총 60시간 교육한다. 봉사·인턴과정은 심화과정으로 25명을 모집하며 조경, 원예, 정원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정원 설계·시공, 정원 관리, 정원 해설 등 총 120시간 현장 실습과 심화교육을 한다.

시민 가드너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남대조경설계연구소(062-530-0319)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산구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전 구간 개통

야촌마을~아이조음교차로

광주시 광산구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중 용보교차로~아이조음교차로 연결 구간(0.28km)이 12일 개통했다. 지난해 개통된 야촌마을 입구~용보교차로 구간 0.7km를 포함한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0.98km 전 구간이 개통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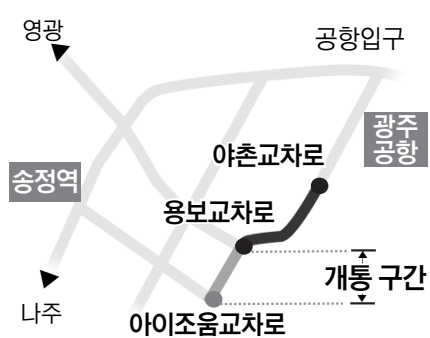
시는 이번 전 구간 개통으로 송정역에서 광주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총사업비 223억원 가운데 국비 11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광주공항과 송정역을 연결하는 도로 중 야촌마을 입구~아이조음교차로(총 0.98km, 폭 35m, 왕복 6차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했다.

민진기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송정역 인근 교통체증이 개선돼 주민과 KTX이용객 교통불편을 크게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위치도



광주시 '콘택트렌즈 신소재 개발' 산자부 지원 선정

광주보건대 산학협력

'지역자생 콘택트렌즈 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풀뿌리기업육성 신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콘택트렌즈 신소재 개발 ▲국내외 인증지원 ▲시제품 제작 등 단계별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분야를 중점 육성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접수된 40개 과제 중 두차례 심사를 거쳐 광주시 과제를 포함, 2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광주보건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광주테크노파크가 기술을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매직콘과 ㈜유니콘텍이 참여해 기술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력산업인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과 연계해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택트렌즈 시장은 2012년 현재 세계

는 101억100만달러, 우리나라는 628억 원 규모로 최근 5년간 5.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치료용과 미용 기능까지 포괄한 콘택트렌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관련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지역 콘택트렌즈 산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집적화를 이루며 성장,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2014년 1400만달러)이 61.1% 차지해 해외에서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민의 빛' 안전점검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가 12일 '국민안전의 빛'을 맞아 지하철 전체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펼쳤다. 공사는 이날 나석주 안전정책감부장 주관으로 육동 차량기지의 재난 관리 현황을 정밀 점검했다. <도시철도공사 제공>

김치타운서 천연식초 만들어보세요

광주김치타운은 '천연발효식초 과정' 참가자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농촌진흥청 여수화 박사 등 강사들이 주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룩, 곡물식초, 과일식초, 막걸리식초 만들기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강의를 한다.

수업은 오는 5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10주간(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총 60시간) 총일반으로 진행된다.

광주김치아카데미 김정숙 원장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성인병 예방 등에 효과 있는 천연발효식초를 만들고, 수강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론을 교육한다"고 말했다.

수강 신청은 오는 5월16일까지 전화 ((사)광주김치아카데미 062-672-8447, 8446)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50만원(교재, 재료비 포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수학여행,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 (4억)후 연 5억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백만원 임대중

오천경매

- ▶ 투자/교육 등등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 ▶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